

# 전남 비교우위 자원 기반 연구기관 국제경쟁력 높인다

### 산림자원연구원, 유용산림자원 지식재산권 확보·산업화 추진 농업기술원, 농산업 소재 특허기술 개발해 글로벌시장 도전 해양수산과학원, 국내 첫 우럭조개 종자 생산기술 개발 성과

전남도 산하 연구기관들이 전남만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개발-산업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나가고 있다. 농산업 핵심자원, 유용산림자원, 양식어류 등에 대한 신제품·신기술을 만들어내 이를 도내 기업들에게 제공해 산업 역량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득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소득수종을 발굴하고, 기후변화 대비 도입수종 연구 및 지역 적응시험, 난대수종 등 토종 산림자원의 산업화 연구를 중점 추진하며 유용산림자원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2023년 한 해 특허, 실용실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7건을 확보해 누적 75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황칠성분이 첨가된 쌀국수 제조방법' 등 46개 기술을 지역 업체에 이전해 지역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물은 ▲국립나주병원, 나주시보건소와 협업으로 추진해 스트레스 수치 저감효과를 밝혀내 의학저널 논문을 추진 중인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 검증' ▲임업인 소득향상이 기대되는 노랑 산딸기 '골드문' 신제품 출원 ▲동백나무 잎 가공을 통한 뼈건강 개선 효능 증진 신소재 개발 등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시니그린과 루테인 함량이 증진된 갯사래기 제조기술 등 30건의 특허출원, 뼈 건강에 이로운 홍화 건나물 제조방법 등 20건의 특허등록을 마치고, 총 50건의 전남도 소유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지역 농산업체의 독점적인 제품 생산과 마케팅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23년 전국단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비·양파·상추 등 주요 농작물의 신제품 개발과 품질보호권 획득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일궜다. 병해충에 강한 '강대찬' 벼 품종등록을 마치는 등 총 5작목 7품종의 품질보호권을

획득했으며 '흑하랑' 상추 품종은 호주 등 3개국에 대한 품질보호출원을 마쳐 글로벌 독점권을 갖춰 가고 있다.

또 전남도 소유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해 15건의 특허기술을 20개 농산업체에 유상이전해 상품개발과 시장테스트, 시범판매 중에 있다. 개발 상품은 시군 관광상품 전문매장(강화 바다클렌저 등), 전남체전·장애인체전 공식음료 지정(아따콤부차), 기내식상품(유자빵), 수출(흑하랑 상추차·양강-홍화순차) 등으로 글로벌 케이(K)-푸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제품 벼 '새청무'는 전남 재배면적의 54%를 보급, 단일품종 보급면적 전국 최대로 식량주권 확보 및 식량공급 기지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우럭조개 종자생산 기술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이를 통한 어미 성숙유도와 조기 종자생산 기술개발, 수하식 양식모델 개발 등 성과를 거둬 2023년 전국 연구·기술보급사업 발표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산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 제1 양식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Aquaculture No.1, RIA 1)와 업무협약을 하고, 상호기관 선진 양식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관광재단, 관광전문인력 교육생 취·창업 성과

### 교육생 72명 중 40명 합격

전남의 정책 전략에 맞춰 올해 처음 고용노동부와 전남도가 추진하고 전남관광재단이 운영한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생 72명중 40여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했다. 관광재단은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인 교육과정 구성 및 강사진, 교육 후 잠재고객을 통한 기업인과 교육생의 현장 매칭, 인턴십 연계 등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성과를 냈다. 교육과정은 전남이 가진 자원과 전남도가 추진하는 관광정책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 및 실습, 현장 답사, 교육 후 실무 형태도 진행했다. <사진> 교육 프로그램은 ▲숲·힐링명상·해양 등 웰니스 관광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 전문

인력 양성 ▲로컬관광 상품기획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세부적으로 배우는 관광기획자 양성 ▲라이브커머스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판로개척 및 빅데이터 활용 홍보마케팅 교육인 ICT형 스마트관광인 양성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수료생 72명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이 62%, 만족이 35%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97%의 응답자가 내년에도 교육이 진행된다면 재참여 및 추천의사가 있었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광산업 분야 취업 및 창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양질의 실무형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국정원 정보보안 실태평가 첫 전국 1위

### 3개 분야 정부합동평가 달성

전남도가 역대 최초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정보보안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정보보안 실태평가에서 전남도는 83.25점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정보보안 실태평가는 국가정보원이 행정기관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능력 확인을 위해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위기대응 역량 등 3개 분야 119개 항목에 대한 만족 여부를 현장에서 확

인하는 평가다.

전남도는 관리적 보안 33.02점, 기술적 보안 26.60점, 위기대응 역량 18.71점, 추가 정보보안 활동 가점 등 총점 83.25점을 기록했다. 지난 2007년 정보보안 평가 시행 이래 최고점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항목 중 최상 난이도의 정보보호 역량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전남도 최초 3개 분야 정부합동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성과도 이뤄졌다.

그동안 전남도는 정보보안 부문에서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전담팀이 없어 매년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단번에 국내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국정원 광주지부와 지역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모든 분야를 철저하게 준비했기에 전국 최고점을 올릴 수 있었다"며 "200만 도민을 위한 조직인 만큼 어떤 영역에서든 실수가 있다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보보안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안 능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총력

###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맞춤형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강화

전남도가 2024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전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으로 지난해보다 2등급이 하락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남도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제감도는 직원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렴영상을 제작·공유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 시책을 적극 추진해 지난해보다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제감도는 사무관리비 저체감사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매년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물품구입 시 검사조서 일회자 확대 지정, 납품일시 인증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부제감도 향상을 위해 청렴 교육, 직급·세대별 청렴정담회 확대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외부제감도 향상을 위해 민원 현장에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소극행정 점검 강화 등 맞춤형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해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교육발전특구 협업체계 본격 가동

### 교육청 등 시범지역 공모

전남도가 지난달 28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담당회의를 개최하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추진과제, 대학혁신체계(RISE사업·글로벌대학30) 등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발전특구 공모 대응 방향도 공유했다.

각 시·군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유사 모델 발굴 시 연계 방안,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시·군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남도와 교육청은 1차 공모에 참여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부 사업 발굴, 지역협의체 구성 등 협업체계 내내 2월 시범운영 1차 공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광열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시·군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을 고려하고 중·고·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학업·취업·정주로 이어지도록 고민해 달라"며 "전남도는 차별화된 지역 교육모델을 발굴해 교육부 공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